

미디어 제작, 활용, 비판 능력을
갖춘 차세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미디어학과

Department of Media



<http://www.communication.ac.kr/>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미디어 전문인력 양성

미디어학과는 미디어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미디어 전문가'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향해 교수진 14명과 학부 재학생 500여 명이 60여 개의 다양한 수업을 통해 역동적인 학습과 소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학과가 지향하는 '미디어 전문가'는 미디어 제작, 활용, 비판 능력을 갖춘 차세대 리더입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경제 발전, 문화 창조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구성원 간 역동적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TV, 인터넷, SNS, 메신저, 1인 미디어, VR 미디어, 사물 인터넷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이 미디어 플랫폼의 다양화와 고도화를 이끌면서, 미래 사회에서 미디어 전문가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희대 미디어학과는 미디어 활용 능력, 소통 능력, 비판 능력을 두루 겸비한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은 저널리즘, 영상, 광고/PR, 스피치, 문화연구,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를 학습하며 관심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합니다.

이론과 실습을 접목한 전인 교육과 과학 교육

미디어학과는 세부 분야별로 다양한 수업을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발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널리즘 분야에서는 <미디어작문>을 통해 미디어 글 쓰기의 기본을 다잡고, <보도 사진론>과 <데이터저널리즘>을 통해 미디어용 이미지 자료와 빅데이터 분석 취재 기법을 학습합니다. 둘째, 영상/문화 분야에서는 <영상 제작>, <영상저널리즘과 뉴스 내러티브>, <문화콘텐츠 비평과 스토리텔링> 등의 수업이 제공됩니다. 셋째, 광고/PR 분야에서는 <크리에이티브전략>, <미디어플래닝>, <쟁점과 위기 관리> 등의 수업을 통해 전략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육성합니다. 또한 <헬스커뮤니케이션>, <정책커뮤니케이션>, <갈등커뮤니케이션> 등 최근 필요

성이 급증한 연구 분야에 대한 학습도 진행됩니다. 넷째, 휴먼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스피치와 프리젠테이션〉, 〈토론과 논증〉 등의 수업을 통해 이견 조정과 설득 전문가를 육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데이터커뮤니케이션의 기초와 활용 수업을 통해 빅데이터 수집-분석-시각화 및 미디어 알고리즘 분석 등을 학습합니다.

이론 수업과 실습수업의 균형

미디어 관련 이론 수업과 실습수업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스 제작과 관련해 〈언론 사상과 역사〉, 〈언론윤리법제〉, 〈저널리즘개론〉 등에서 이론을 학습하고, 〈미디어 작문〉, 〈데이터 저널리즘〉, 〈영상저널리즘과 뉴스 내러티브〉 등에서 실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상과 광고/PR 등의 분야에서도 이론과 실습수업이 병행되며, 균형있는 학습을 유도합니다. 특히 실습수업에서는 과제로 제작한 프로젝트를 각종 공모전에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업체에서 현장학습이나 인턴 경험으로 이어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관련 학회 및 동아리

미디어학과는 영상, 광고, 영화, 대중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회와 동아리 활동이 활발한 편입니다. 예를 들면, '지존방송연구회'는 워크숍, 세미나, 방송제 등의 행사를 통해 다양한 방송 작품을 제작하는 경험을 쌓으며, '지성광고PR학회'는 스스로 제작한 기획안을 가지고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고, 광고 공모전에 참가해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영화비평학회 '디뷰(DMEW)'와 연극연출 분야의 '희망연극문화부'도 영화 관련 세미나와 연극 공연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밴드, 댄스 동아리, 1인 미디어 동아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디어학과가 자랑하는 졸업생들

졸업생들은 미디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여성 KBS PD협회장으로 선출된 최지원 PD는 <추적 60분>, <명견만리>, <다큐멘터리 3일>, <역사저널 그날> 등을 연출한 시사교양 프로그램 분야의 실력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SBS 탐사 보도부 배여운 기자는 2020년 <올해의 주목할 만한 데이터저널리스트> 상을 수상하며 데이터저널리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KBS 오언종 아나운서, MBC 전종환 아나운서 등 주요 방송국 프로그램 진행에서도 미디어학과 졸업생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밖에 원동연 리얼라이즈픽처스 대표도 <신과함께> 등 영화 제작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개그우먼 신보라와 영화배우 김태리도 미디어학과가 자랑하는 졸업생들입니다.



향후 교과과정의 변화는?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 콘텐츠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미디어는 빅데이터, 영상(1인 미디어 포함), 소셜미디어, 문화콘텐츠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저널리즘>을 신설해 전통적 취재보도 방식을 넘어 빅데이터 크롤링과 세련된 시각화를 학습하게 하고, 개편된 <문화콘텐츠 비평과 스토리텔링>에서 다양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활용 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합니다.